

신경향파 시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현 철 종*

차례

1. 서론
2. 신경향파 시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3. 결론

1. 서론

신경향파 시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그 발생 원인, 활동 기간, 성격, 갈래 영역, 영향 관계 등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연구 성과가 충분치 못한 데 있다. 임화는 “신경향파문학은 겨우 다이쇼(大正) 12, 3년 경에 근근히 형성된 것으로 전기(前記)의 토대적인 제운동보다 상당히 후행적(後行的)이었다. <중략> 신경향파 문학적 시 발기로서 보편화된 연대인 1924년(大正 13)대의 조선의 사회 정황을 살펴어봄이 가장 有意義할 것이다”¹⁾라고 진술하고 있다. 김윤식은 『근대문에 비평사연구』에서 신경향파에 대해서 단락조차 설정하지 않은 채, “내가 『한국근대비평사연구』(1973)를 출간했을 때 그 첫장을 신경향파 문학론으로 삼았고”란 묘한 언급을 하고 있음은 물론 구체적인 기간 언급도 없이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 조선중앙일보, 1935. 11. 2.

막연히 1920년대 초를 설정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연구 성과로 비교적 구체적 기간을 규명한 것으로는 박상준, 유문선, 문혜원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상준은 1923년 박종화의 「문단의 일년을 추억하야-추억과 작품을 개평하노라」²⁾에서부터 박영희의 「신경향파 문학과 무산파의 문학」³⁾으로 잡고 있다.⁴⁾ 문혜원은 신경향파 시론의 시기에 대해서 유문선의 『신경향파 문학비평 연구』⁵⁾를 근거로 1921년경부터 1926년경까지 설정하였다.⁶⁾ 그러면서 신경향파 시론에 대한 검토를 석송 김형원, 팔봉 김기진에서 포석 조명희, 월탄 박종화, 이상화, 양명 등의 시론까지 확장해야 한다⁷⁾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종진은 신경향파시론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시론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생적 측면과 외래적 측면으로 구분, 1923년 팔봉이 귀국하여 본격적인 프롤레타리아 문학 활동을 하게 되는 1923년 중반기까지를 경계로 자생적 수용과 본격적 수용기로 구분하고 있다.⁸⁾ 김시태는 사회주의 노선의 문학운동을 제창한 것으로 임정재의 「文士 諸君에게 與이하는 一文」⁹⁾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¹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신경향파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발생과 구체적인 기간조차 설정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신경향파에 대한 연구의 계속성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다.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申正鉉은 인간·자연·사회의 총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품는 의식 형태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의 기능을 주장한다. ① 그들의 존재에 그 근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가치체계), ② 자기와 객관적 여러 조건에

2) 개벽 31호, 1923. 1.

3) 조선지광 64호, 1927. 2.

4) 박상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신경향파』(소명출판사, 2000), 141면.

5) 유문선, 『신경향파 문학비평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5).

6) 한계전 외, 『한국 현대시론사 연구』(문학과 지성사, 1998), 98면.

7) 한계전 외, 위의 책, 99면.

8) 정종진, 『한국현대시론사』(태학사, 1991), 88면.

9) 임정재, 『개벽』37호, 1923. 3. 7.

10) 김시태, 『한국 프로문학 비평 연구』(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77).

대한 현실적 인식을 가져다 주고(분석체계), ③ 願望과 확신에 의해서 자기의 잠재적 에너지를 의지적으로 활성화하며(신념체계), ④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에 대한 수단과 태도의 선택 도식을 포함한다. 이 같은 내용을 지니는 의식형태가 사회집단(정당·조직·세대·계층·계급 등)에 의해서 공유되면, 거기에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성립한다. 또 이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인 여러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내면화되면 각 개인의 개인적 이데올로기가 형성된다. 사람들은 갖가지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錯綜하는 가운데서 전통적인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경제구조에 照應하는 어떤 개인적 이데올로기의 담당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싫든 좋든 이데올로기에 의해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올바른 가치와 정확한 분석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는 뛰어난 현실 인식을 가져오며,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회적 요구에 올바른 실천적 해결의 길잡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¹¹⁾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김시태는 초기 프로 문학 운동의 특질을 교도적 계몽성으로 주장한 바 있다.

한국문단은 근대사의 특수성 때문에 근대로 접어들면서 시인을 비롯한 문인들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다. 개화 혹은 민족 개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지향 등이 그러한 예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신경향파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추구는 한국 문단에 획기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임화의 말처럼 당시로서는 어쩌면 조선문학의 생사가 걸린 절박한 현실 상황 속에서 지향된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신경향파는 그 명칭 개념에서 보이는 것처럼 식민지, 세계 개조의 변조 등의 현실 상황 속에서 문학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려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경향파는 가치체계나, 분석 체계, 신념 체계 등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비평과 시론의 구분이다. 비평 중에는 소설에 관한 것, 시에 관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소설이나 문학 전반에

11) 김현식, 『동아원색대백과사전』 23권(동아출판사, 1989), 90쪽.

관한 것들이어서 이에 대한 분류를 통해 시론 영역의 비평을 체계화해야 한다. 그런 후 타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그 영향 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신경향파 시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그 본질을 규명하고 그것이 시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신경향파 시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신경향파는 『백조』 중심의 낭만적 문학으로부터 전향한 시인들에 의해서 현실 이데올로기를 추구했던 경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영희의 말대로라면 사회주의 사상을 통하여 현실성과 사상성을 문학에서 찾고자 제안한 사람은 김기진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김기진의 회고록¹²⁾을 비롯한 박영희의 『초창기의 문단측면사』¹³⁾, 임화의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 백철의 『신문학 사조사』¹⁴⁾와 석송 김형원, 포석 조명희, 월탄 박종화, 이상화 등의 시론을 살펴보는 일은 신경향파 시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김기진의 회고록을 보면 당시의 문단은 동인간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허> 동인과 <백조> 동인의 대립은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김기진에 의하면, “창조파니 폐허파니 백조파니 하는 유파가 현실과 용감히 싸우려는 의지는 없고 현실을 거죽으로 핥거나, 혹은 영탄만 하거나, 혹은 도피만 하는 경향”¹⁵⁾이었다고 한다. 그런 것으로 보면 박영희와 동창이었던 김기진이 1922년 <백조> 동인으로 가입했다고 하지만 <백조> 동인들의 경향과는 다른 경향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회월과는 거의 날마다 현실을 보는 눈과, 사물을 관찰할 때 쓸 척도, 이상을 실

12) 김기진, 『세대』 제14호-30호, 1964-1966년 1월.

13)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 『현대문학』 제60호(현대문학사, 1959, 12월).

14)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99.

15) 임규찬·한기형, 『키프시대에 대한 회고와 문학사(키프비평자료총서 2)』(태학사, 1999), 422쪽

현하는 방법, 인간의 양심과 사회의 정의 등 …… 이런 문제를 토론하면서 그 당시 내가 걸어가려 하던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 그를 유도하기에 마음을 기울였었다”는 김기진의 실태에서 실증할 수 있다.

박영희 역시, “조선 사람의 중산계급은 날마다 가난하게 되며, 직업 없는 지식인의 무리는 거리에서 헤매고 있으며, 한편으로 사상운동은 건잡을 수 없이 일어나 경찰서와 감옥이 넘치도록 잡아갔으며 독립단원은 국경에서 일본경찰과 싸우며 국내에서도 폭탄을 던지고 권총을 쏘는 등 극도로 불안해가는 조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꿈의 문학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회의와 불안이 날로 커 갔었다. 글 쓰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았다. 우리는 우리의 답답하고 피로한 신경을 좀 힘 있게 해 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였었다. 우리는 이 무엇을 노국문학에서 찾아보려고 하였다. 제정시대의 러시아에는 인민의 자유가 없고 굶주림과 학대뿐으로 그 때 러시아문학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었으나 혁명가의 생활을 비롯하여, 파멸을 당한 인민들의 비장한 생활과 부르짖음이 있었고, 무수한 사상가들의 시베리아 유형생활 등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냐는 호소와 이상이 그 문학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이곳에서 우리는 현실성과 사상성을 새로이 알게 된 것이었다.”¹⁶⁾라고 말하고 있음에서 그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1923년 5월 토월회 공연 준비를 위해 동경에서 서울로 귀국한 김기진이 방정환의 부탁으로 『개벽』에 「프로므나드 상티망탈」이란 글을 게재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지배계급 교화, 피지배계급 교화」, 「금일의 문학 명일의 문학」 등은 바로 새 바람을 일으키려던 김기진의 의도가 서린 글들이다. 김기진은 그의 말대로 1921년부터 1922년까지는 신낭만주의 사상, 상징주의를 따르는 예술지상주의자였고, 1922년 가을부터는 좌경 사상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김기진이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지향한 것은 일본 유학 시절 앙리 바르뷔스, 中西伊之助, 麻生久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16) 위의 책, 347쪽.

사회주의 사상, 노동조합 운동이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영회를 설득하여 1923년 후반부터 유물사관에 의한 문학관에 전적으로 공명하게 하였다. <백조>의 붕괴도 박영회, 김기진 등의 경향 전환과 관계 깊다 할 것이다. 김기진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일본에서 麻生久가 “당신은 일본서 더 대학에 다닐 것도 없이 조선에 돌아가서 씨를 뿌리시오. 그것이 조선을 위해서 중요한 일시오.”¹⁷⁾ 라는 말에 영향을 받고 책을 몽땅 팔고 귀국했다는 김기진의 회고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귀국 후 토월회의 2회 공연(1923. 9월) 후에 김복진, 연학년과 더불어 토월회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경향의 문예운동을 피하기 위해서, 인생을 위한 예술, 현실과 싸우는 의지의 예술을 지향하기 위해서 파스쿨라(박영회, 이상화, 이익상, 김복진, 김기진, 김형원, 연학년, 안석영)를 조직한 것도 그러한 김기진의 의도와 관계 깊다 할 것이다. 파스쿨라는 시인, 기자, 조각가 희망자, 화가, 극연출 지망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색적인 모임이었다.

그런데 파스쿨라는 최승일, 송영, 윤기정, 이적효, 이호, 박용대, 김운, 박세영, 김영팔 등이 이끈 염군사의 성격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염군사는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을 청년 지식층과 노동자 농민층에 보급시키며 선전 활동을 도모하려는 사회주의적인 문화집단이었다. 김기진이 염군사에 대해서 작품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한 모든 선전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조하고 싶지 않았다는 회고가 이를 입증한다. 그러한 생각은 박영회, 김형원 등도 마찬가지였다. 파스쿨라의 주도자들은 대체적으로 문학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었고 정치활동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요인이 윤기정, 송영 등의 염군사와 파스쿨라 합동 합작 체에 박영회, 김기진 등이 선뜻 찬동하지 않은 까닭으로 보인다. 김형원이 파스쿨라와 작별하고 <생장>(1925. 1월)을 창간한 것이라든지 김기진이 <생장> 동인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김기진의 「클라르테 운동의 세계화」, 「바르뷔스 대 로맹 롤랑의 논쟁」, 「또다시 클라르테 운동에 대해서」는 바로 신경향파 문학운동의 초기 이론

17) 위의 책, 423쪽.

적 근거가 되는 바르뷔스 주의의 소개문이다. 김기진의 초기 문학관은 바르뷔스를 통한 마르크스주의의 수용으로 특징화된다. 김기진은 무엇보다도 사회개혁을 염두에 두고 문학은 자연히 그것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 듯하다. 박영희 역시 김기진과 비슷한 관점에서 무산계급문학을 논했다. 그의 문학관은 부정과 파괴, 형식보다 절규, 묘사보다는 사실 표현, 미보다는 힘 등을 지향하게 된다. 이처럼 김기진의 사회주의 문학 이념을 박영희가 문학적 실천 기반으로 『개벽』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신경향파 문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경향파의 등장에 대해서 박종화는 「문단의 일년을 추억하여」¹⁸⁾에서, “비록 문단의 표면으로 논쟁된 일은 없으나 소리 없이 잠잠한 듯한 그 밑 바닥에는 조선문단에도 또한 부르조아 예술 대(對) 프롤레타리아예술의 대치된 핵자(核子)가 잉태되었다.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 운동은 사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의 가치론과 현상론에도 파급되어 각국 문단에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임화는 “신경향파가 그 자체를 문학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직접으로 관계한 것은 기미 이후에 개화된 자연주의와 데카다니즘, 낭만주의 등의 문학이었다. …… 이 때 비로소 조선의 신문학은 문단이라는 것을 가졌고 유치하나마 비평이 생기고 시와 소설이 근대적 형태의 터를 잡아 마치 황혼을 맞는 하늘과 같이 어린 문학조선의 하늘은 미증유의 성관(盛觀)을 정(呈)하였다. 프로문학의 영아(嬰兒) 신경향파 문학이 이 가운데서 자기의 문학적 영양을 섭취하고 그들이 해결치 못한 잡다한 사상적 문학적 부채를 계승하면서 차등(此等) 문학의 부정적인 제점(諸點)에 화살을 던지고 생활적 역사의 새로운 요구에 조응하면서 시대의 전면에 일어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¹⁹⁾ 그러면서 임화는 “우리가 문학이 생활적 진실의 반영자 구현자이고 그 토대 위에서 자기의 자유스러운 창조적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면 문학이 그 자신의 위기를 타개치 못하고 기피하거나 좌절한다면 그것은 곧 생활적 현실로부터 격리되는 것이다”(조선중앙

18) 박월탄, 『개벽』 1월호, 1923년.

19) 임규찬·한진일 편 『임화 신문학사』 중 「조선신문학사론 서설」(한길사, 1993, 327쪽.

일보, 1935, 10. 9.)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문학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절박성을 갈파하는 것이다.

백철은 “이 땅의 신문학 사조는 자연주의나 백조파의 낭만주의가 성숙한 시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 분수령에서부터 모든 것은 급전하여 근대사에 반역한 현실의 동향을 따라 흐르게 되었고, 신문학사는 여기서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침체를 부르짖던 1924, 5년 경의 문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신경향파 문학의 등장이었다. 그러면 이 신경향파 문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운동이 명확한 형태를 띠고 등장한 것은 1923년 하반기부터이지만 그러나 신경향파의 기운이 문단에 미동하기 시작한 것은 1922년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라고 하였다.

한계전은 석송 김형원을 1920년에 발표한 시 「민중의 공복」과 논문 「조선 신문학 건설의 급무를 제창함」, 시론 「민주문예소론」을 분석하여 석송의 시론을 ‘力的 시’, ‘평등 사상’²⁰⁾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W. 휘트먼의 민주주의 시론을 수용해서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을 맺으면서 신경향파 시론의 형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나온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계전은 석송의 ‘역의 시’는 월탄을 거쳐 팔봉으로 이어지면 이외의 반응을 일으켜 신경향파 시론에 한 걸음 접근하게 된다²¹⁾고 말하고 있다. 휘트먼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과거의 귀족주의를 타파하고 민중을 위해서, 민중에 관해서 씌어진 시, 전통적인 운율법에서 탈피, 소재의 자유로운 선택 등을 주장했던 시인이다.

문혜원도 한계전의 그러한 주장을 이어받아 김형원 시론의 골자는 그의 시론 제목과도 같이 ‘민주주의’라고 단정하면서 그가 말하는 민주문예는 귀족주의 문예의 대항 개념으로서 그 핵심은 자유와 평등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명희의 시론을 들어 김형원과 유사한 출발과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포석 조명희의 『집 없는 나그네의 무리』(『개벽』, 제45호, 1924, 3.)와 시집 『봄 잔디밭 위에』(춘추각, 1924) 自序를

20) 한계전, 『한국현대시론연구』(일지사, 1990), 86쪽.

21) 한계전, 위의 책, 85쪽.

분석하여 휴머니즘 시론이라 언급하였다. 결국 문혜원은 김형원과 조명희의 시론을 ‘민주주의와 휴머니즘 지향’²²⁾으로 규정한 것이다.

박종화는 『오호 아문단』에서 우리는 이제 아름다움 또는 공교한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더 뜨거운 것을 달라 더 뜨거운 것을 달라, 더 아프고 괴롭고 쓴 것을 달라고 절규하였다. 이는 역의 예술 시론과 일치한다.²³⁾ 박종화 시론의 핵심은 예술은 현실에 발을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종화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굶주리고 험 옷 입은 조선 민중을 염두에 두었다. 민중이 사랑하는 작품, 민중의 생각을 부르짖는 시인을 원한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계급성으로 이어져 『계급문학시비론』²⁴⁾을 내놓게 한다. 이 글에서 박종화는 인생을 떠나서 문학이 없는데, 계급이 있는 인생인 이상 문학에도 확실히 계급이 있다는 주장을 펴다.

이상화는 신경향파 시인 중 대표적 시인이다. 이상화는 『시의 생활화』에서 “오늘의 시인은 사상의 비판자이어야 하고 생활의 선구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라는 의식과 생명을 완전히 추구하면서 시인의 사상을 시 위에서 행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시론은 『문단 측면관』²⁵⁾, 『지난달 시와 소설』²⁶⁾, 『시의 생활화』²⁷⁾, 『문예의 시대적 변위와 작가의 의식적 태도론』²⁸⁾ 등에서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상화 시론이 보여주는 이데올로기 성격은 시를 생활화하는 데 있다. 즉 인간 생활을 시로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시는 이상화에게 있어서는 수사와 기교에 찬 사투한 장난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문학 측면관」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지향한 것은 새로운 생활 양식을 구성할 실감 있는 생명의 창조였다.

결국 신경향파 시론은 염군사 등에서 추진되던 사회적 운동에서 파스

22) 문혜원, 『한국현대 시론사 연구』, 1998, 99쪽.

23) 문혜원, 위의 책, 107쪽.

24) 박종화, 『계급문학 시비론』, 『개벽』 제56호 1925, 2월, 49쪽.

25) 이상화, 『개벽』 제58호, 1925. 4.

26) 이상화, 『개벽』 제60호, 1925. 6.

27) 이상화, 『시대일보』, 1925. 6. 30.

28) 이상화, 『문예운동』 제1호, 1926. 1.

콜라 동인들의 힘을 빌어 문학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다는 점, 자연주의·데카당스·낭만주의를 비판하며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했다는 점, 변화되는 시대 추세에 병진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요구에 조용하려 하였다 는 점, 현실 동향을 중시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신경향파 문학은 결국 안막의 말²⁹⁾대로 유치한 것이긴 하였지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색채를 띤 것이었다.

『백조』와 등의 시에서는 현실세계보다 피안의 세계를 동경했다. 예술을 위한 예술처럼 시인 속으로, 시 작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사회적으로는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낭만주의와는 매우 다른 현실 개혁적인 것을 중시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경향파 시론이다. 이 전환 과정은 사회적 요인 이외에, 낭만주의 내부에서 자신들의 시의 한계를 인식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상화의 ‘백조’ 동인으로서의 초기작 「나의 침실로」와 후기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가」를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는 김병택의 주장³⁰⁾처럼 표현론에 입각한 낭만주의 시의식에서 이데올로기적 효용론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결론

염군사(焰群社)가 결성되던 시기에, 총독 사이토(齋藤實)³¹⁾는 첫째, 조선의 독립을 허하 않을 것, 둘째, 조선인의 조선 자치를 허하지 않을 것, 셋째, 조선에 지방 자치를 허할 것, 넷째, 재외 조선인에 대한 보호 취제의 방법을 수립할 것, 다섯째, 문명적 행정을 행할 것 등으로 구성된 조선

29) 안막,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운동 약사」(사상월보, 1932. 10), 임규찬·한기형, 위의 책, 114쪽.

30) 김병택, 『한국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31) 데라우치(寺内正毅), 하세가와(長谷川好道)에 이은 제3대(1919. 8. 12~1927. 12. 10), 5대(1929. 8. 17.~1931. 6. 17) 조선 총독

의 통치 방침을 정한 뒤 훈시(1919. 9. 3. '언론 출판 집회 등에 대하여는 질서와 공안 유지에 무방한 한 상당히 고려를 가하여 민의창달을 허(許) 하여야 한다')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받을 때였다. 그로 인해 많은 잡지와 동인지들이 발행되었다.³²⁾

잡지나 동인지 신문 등의 발간은 일제 시대라는 구속적 여건 속에서도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 세계 개조의 조류 수용, 즉 사상이나 문예사조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해주었다. 그로 말미암아 아나키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불세비즘 등의 좌익사상의 급격한 확산을 가져온다. 한국 문단에서도 서구의 세기말적 경향과 퇴폐주의, 상징주의, 낭만주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을 수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구문예사조와 사회주의 사상을 지향하려는 지식인들의 사고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 의식과 민족 해방 운동으로 성숙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는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192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성향을 지닌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그리고 청년운동 등이 활발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시대 현실 때문이었다. 신경향파시론의 대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현실 상황을 지향하려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김기진의 역할과 박영희의 사상적 전환,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파급되는 사회주의 운동에 의해 조직된 <염군사>, <파스칼라> 등, 그리고 「개벽」 등의 출판매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김기진, 박영희 등의 활발한 비평적 활동으로 신경향학과 시론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김기진, 김형원, 포석 조명희, 월탄 박종화, 이상화 등의 신경향파 시론은 사회적 현실을 문학 세계 속으로 수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32) 그 예로는 조선일보(1920. 3. 5), 동아일보(1920. 4. 1), 시대일보(1924. 3.31), 서광(曙光, 1919), 서울(1919), 삼광(三光, 1919), 개벽(開闢, 1920. 6.25.), 공제(共濟, 1920), 학생계(學生界, 1920. 7), 폐허(廢墟, 1920. 7.25.), 새동무(1920. 11), 청년, 신천지, 아성(我聲), 신민공론(新民公論), 동명(東明), 조선지광(朝鮮之光), 노동성(勞農聲), 신생활, 조선문단(朝鮮文壇, 1924.10. 1.) 등을 들 수 있다.

- 핵심어: 신경향파, 신경향파 시론, 사회 현실, 사상적 사고

<참고문헌>

- 김병택. 『한국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 김시대. 『한국 프로문학 비평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77.
- 김현식. 『동아원색대백과사전』 23권, 1989.
- 박상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신경향파』. 소명출판사, 2000.
-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99.
- 유문선. 『신경향파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5.
- 임규찬·한기형. 『카프시대에 대한 회고와 문학사』(카프비평자료총서 2).
태학사, 1989.
- 임규찬·한진일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 정종진. 『한국현대시론사』. 태학사, 1991.
- 한계전 외. 『한국 현대시론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8.
- 한계전. 『한국현대시론연구』, 일지사. 1990.

<Abstract>

Ideological Aspect of Shin-gyeong-hyang-pa Poetics

Hyun Cheol-Jong

This study proposes to examine the essence of Shin-gyeong-hyang-pa poetics, focusing mainly on its ideological aspect.

Shin-gyeong-hyang-pa wanted members of Pa-s-kyu-la to extend into thier literary activities the aims of social movement that Yom-gun-sa pursued . This literary group, a kind of anti-conventional literary school in the 1920s, placed much value on political thought and ideology, criticizing naturalism, decadence, romanticism and other contemporary trends of literature. The reality-oriented group tried to meet the demand of new ideology corresponding to changing reality.

These cosidered, Shin-gyeong-hyang-pa literature, as An-mak said, was amateurish but surely had the color socialist ideology. Also it attempted to accomodate contemporary social reality into its literary works.

- Key words: Shin-gyeong-hyang-pa(a kind of anti-conventional literary school in the 1920s), Shin-gyeong-hyang-pa poetics, social reality, political thought and ideology